

“언제 어느때나 아이들 마음 놓고 맡기세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아이들 방학 때도 문 열어...맛벌이 가정 등 호응

“아까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지난 2일 휴가철이라 온 동네가 조용하지만 인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아이들 소리로 시끌시끌하다. 이곳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다.
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9시이지만 그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아이도 여럿이다. 휴대전화 게임은 물론이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없는 곳이어도 아이들은 이곳이 재미난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열쇠고리 만들기, 그림 그리기, 클레이 등 다른 놀이로 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아침 마션은 캐릭터가 그려진 펠트를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플라스틱 바늘을 이리저리 움직여 열쇠고리 하나씩 똑똑 만들어냈다.
쌍둥이 최은서, 최은우 양은 서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열심이다. 최은서 양은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하면 집에서 조금 기다렸

다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이곳으로 온다”며 “아침마다 하는 활동이 재미 있어 매일매일 오고싶다”고 말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 때 매일 오전 9시 문을 열어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맛벌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 이후까지도 맡는다.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기에 각자 도시락을 싸 와야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 오후에는 간식 시간이 있다.
센터는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용하는 아이들이면 학원을 다녀온 뒤에도, 놀이터에서 온 다음에도 언제든지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다. 전체 정원은 20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아이 대부분이 부모가 맛벌이를 한다.
이제 돌봄교사는 “어제는 요 며칠 비가 내린 탓에 밖에서 놀지 못했던 아이들이 비가 그친 뒤 놀이터에 나갔다가 담뱃가 다시 센터로 돌아왔다”며 “어그제는 오후 6

시가 넘어 퇴근하는 부모님을 함께 기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학에는 매일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추가했다. ‘보드게임’ ‘교통안전 스토리’ ‘댄스’로 떠나는 국토여행 ‘플래처’ 창의 과학 등을 더했다. 열쇠고리를 다 만든 아이들은 보드게임 시간을 기다린다. 강사는 이날 규칙에 따라 아이스크림 스틱을 쌓는 게임 ‘몬스터’를 준비했다. 스틱마다 숫자가 쓰여있고 그것을 오름차순으로 혹은 짝수만 등의 규칙을 세워 더 먼저 해낸 사람이기는 게임이다.
아이들은 어느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보드게임에 간단한 수학 원리를 더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홀수, 짝수, 그리고 규칙을 지켜며 놀이하는 법을 배운다. 친구가 어떤 아이스크림과 숫자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일은 덤이다.
보드게임 시간에 맞춰 달려온 김서연 양은 “저번주에 했던 보드게임이 무척 재미나 늦지 않으려고 부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맛벌이 가정 등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사진: 인천시 제공)

나케 왔다”며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하니깐 즐겁다”고 말했다.
아이를 이곳에 맡기는 부모들도 걱정을 덜었다. 방학에도 안심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이곳에 보내고 있는 프리랜서 김지은 씨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주로 해

야하는 데 방학에는 아이와 온종일 함께 있어야 하기에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기도 마땅치 않아 전 전공공하던 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센터장은 “아이들이 언제나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며 “아이들은 이곳에서 돌봄과 휴식,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부하는 곳 아닌 마음어려운 곳으로만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

입법 3명 등 10명...2024년 7월까지 2년 임기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9일 의정집결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위원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천시의회가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강화군,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확대

차상위계층·국가보훈대상자 등 100% 감면 전자송달·자동이체 납세자 세액공제도 추진

인천 강화군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확대에 나섰다. 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화군 균세감면 조례 제9조’를 신설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등으로 주민세 100%를 감면한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도 확대해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1,600원을 공제한다.
주민세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IBX156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 이어 법률고문에는 조원진(법무법인 동주)·한필운(법률사무소 국민생각)·권오용(법무법인 황연씨)·김문중(김문중법률사무소)·박용만(법무법인 집현)·조용균(법무법인 로웰)·최원식(법률사무소 건진)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정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김찬진 동구청장이 폭우 피해현장을 방문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천 동구 제공)

김찬진 동구청장, 폭우 피해 현장 점검

“호우 주민 피해 최소화 예찰 강화 피해 발생 즉시 복구 준비 만전

인천 동구는 지난 8일 인천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부처별 조치사항을 시달렸다.
지난 8일 서울과 인천·경기 등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인천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만조인 13시에 집중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동구 지역에는 총 21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8일 저녁에는 송현동 내 공가 벽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변 거주 주민들이 인근 속

박업소로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김찬진 구청장은 9일 아침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폐가의 사전 안전 점검과 예찰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호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동 기자 jhd@hyundaiilbo.com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5차일어플 스마트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032-8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주민세 납부제도로 신고,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재개발 정비 조속 완료 주민 위한 것”

김정현 중구청장, 원도심 재개발·주택조합 현장 시찰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5일 원도심 재개발 구역 5곳과 지역주택조합 2곳 현장을 시찰했다.
중구의 정비사업 구역은 당초 12개 구역이었으나 주민들의 해제요청에 따라 7개 구역은 해제되어 현재 5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이며,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은 2개 구역이 추진 중이다.
장기간 정체가 있던 중구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들은 다시 사업 추진 속도에 불을 붙이고 자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보다 작지만 추진 절차가 빠른 지역주택

조합 건설사업 구역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김정현 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사업구역 내 주민들 고통이 너무 컸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중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고 말하며 “내향 재개발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리 확대·강화

초기 단계 어르신 기억센터 등 하루 3시간 인지재활 프로그램

인천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19 대응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축소 운영됐던 여러 치매 관리사업들을 재개하고 확대·강화해 나간다.
치매안심센터는 9일 “이제 치매는 관리가 상식”이라며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센터는 첫 번째로 초기(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기억센터’ 프로그

램을 확대한다. ‘기억센터’는 초기(경증)단계,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 어르신 중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오전·오후반으로 운영되고 초기 치매 진단자 대상 특화반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약물치료 외 인지 자극 훈련 등 꾸준한 비약물적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방지가 중요하다”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치매 어르신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 치매 이행 방지를 위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두 번째로 독거·노인부부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선정해 가정방문, 전화상담, 자원 연계 등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고령자’, ‘디지털 소외’라는 말이 화두가 될 정도로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일상에서 차별

받고 있다”며 “식당, 은행 등에서 키오스크 발판기 체험 훈련을 추가해 치매 어르신들도 입장을 영위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맞춤형 사례관리에 한 가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는 가족교실’을 운영해 치매 환자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치매는 가족에게 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다. 센터는 치매 가족들에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헤어링 교실’, 치매를 이해하고 돌봄 기술을 익히는 가족 간 ‘자조모임’을 통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